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10월 23~25일, 교회당서...기증물품 접수 내주부터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가 10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3일 간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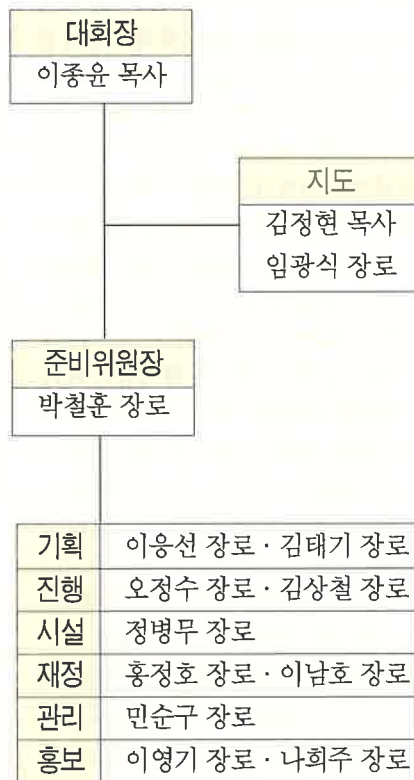
이번 바자는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사60:7)는 주제로 새 예배당 건축에 성도들의 관심을 모으는 한편 건축기금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바자는 성도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농어촌 자매교회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했다.

바자에서는 성도들의 기증품을 접수하여 이를 판매하는데 각 가정에서 활용가능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중고물품,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할 물건들을 모으게 된다(목록은 4면 참고). 접수는 다음 주일(28일)부터 시작하며 평일에도 접수한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또한 이번 바자에서는 농어촌 자매교회의 농수특산물도 판매할 예정이며 일부 품목은 위탁판매도 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바자는 교회설립기념일을 앞두고 비전2000운동 기간에 개최되는 만큼 전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대상자들과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행사 조직



교구별 담당자

교구	지도	점장	접수
1	박귀환	오정수	이은희
2	박귀환	정병무	이혜순
3	이성득	성준경	정동호
4	이성득	김태기	강영자
5	민영수	홍정호	탁경준
6	민영수	김광신	박정수
7	김정현	김영준	최정희
8	김정현	이영기	제오복
9	이순환	윤봉준	신기숙
10	이순환	노문환	김선영
11	김명현	박철훈	김정희
12	김명현	최종시	최일준

분과별 주요업무

- **기획**: 기획, 섭외, 품목결정
- **진행**: 가격책정, 기록, 판매원 관리
- **시설**: 장소배정, 표시제작 · 설치 · 철수
- **재정**: 회계 및 결산
- **관리**: 물품 접수 · 분류 · 관리
- **홍보**: 대내외 홍보

바자를 위한 행사 조직은 <표>와 같으며 준비위원들은 오늘 찬양예배 후 2층 예배실에서 제 1차 준비모임을 갖고 바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에서 제 1차 준비모임을 갖고 바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97 비전2000운동 두 주 앞으로 “태신자 정하셨습니다?”

‘비전2000 운동’은 21세기가 되기 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이 진행되는 50일 간은 전도와 아울러 능력과 기쁨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 힘쓰게 된다.

우리 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기도를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린 바 있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창립기념일 50일 전이 되면 비전 2000 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도 다음 달 5일(주일)에 발대식을 갖고 교회설립일인 11월 23일까지 50일간 전도와 기도운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97 비전2000 운동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태신자를 정하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10장 1 ~ 15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 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 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뮷 왕과 라 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 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 가에 이르러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감도록 하였느니라 ...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10:1 - 15).



이종운 목사

태양을 머물게 한 사람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부흥사 Leland Wong 목사는 그의 편지지 위에 이런 말을 써 놓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수10:13),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왕하6:6),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입니다(시48:14)”

도끼가 정말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회전하던 태양이 정말 멈출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실수로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것은 사실상 가나안 정복의 지름길을 놓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 왕을 포함한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하여 기브온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때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원병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저들과 마주치게 했지만 적이 워낙 강군인이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8절).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10절). 그들이 도망칠 때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시어 그 때 우박으로 죽은 자가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습니다(11절). 이 지역에 큰 우박이 내렸다는 것은 큰 이변이었습니 다. 큰 우박이 내리니 하늘은 먹구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진격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전쟁이 가나안 남방 동맹군을 진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밤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12절). 그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감도록 하였습니다(13절).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 여부를 떠나 엄청난 문제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설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지구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태양이 머문 것인지 즉 기적이 사실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은유적 표현인지 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에서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것은 우주 개벽 이후 대사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같은 기이한 사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라”(14절)

1. 사실인가, 느낌인가

기브온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요? 태양이

머물렀다면 지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이 가르치시려 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기 보다는 일광시간을 길게 연장시키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문법적인 해석을 따르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살의 책과 같은 영웅전에도 기록된 것이지만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낮을 길게 하신 것인지도, 태양열을 감해 주신 것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원수들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사건은 느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태양도, 달도 머물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큰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둘째, 여호수아의 담대한 신앙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많은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는 일은 인간의 용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이를 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사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분노의 발작도, 순간적 도취도, 자존심의 발로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가 된 85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 강을 범계를 메고 밟고 건넌으며 결국 가나안 정복의 기수가 된 것입니다.

셋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여호수아도 자기 책임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신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켰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 받은 여호수아가 다음 날 아침 원수들을 공격하기 위해 야간 행군을 하며 군대를 이동하고 전투에 임한 것에서도 그의 신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은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 종교자유 의의

우리 헌법은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영역에서의 개성신장을 돕는 하나의 방법으로 종교의 자유(제20조)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생활을 그 보호대상을 하는 것으로 종교의 내용은 신앙이고, 신앙의 내용은 절대자에 대한 귀의 또는 신과 피안에 대한 내적 확신이다. 이는 사상 및 미신과의 구별되는 것이며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적·도덕적 마음가짐인 양심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2. 종교자유 의 내용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객관적인 가치질서에 속한다.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은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신앙의 자유는 '신앙을 가지는 자유'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데, '신앙을 가지는 자유'에는 신앙선택, 신앙변경, 신앙포기, 신앙고백, 신앙침묵의 자유 등이 속한다. 무신론도 일종의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신앙실행의 자유는 여러 가지 종교행사 내지 종교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이다. 신앙실행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전전(포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에 이와 같은 신앙실행의 자

지상강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

이 글은 9월 8일 목회자신학세미나의
허영 교수(연세대 법대) 강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유가 함께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신앙실행의 자유는 적극적인 신앙실행 뿐 아니라 소극적인 신앙실행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종교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 중에서 내면적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의 자유는 법률에 의한 규제나 제한이 불가능하거나 적당치 못한 인간의 내심영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을 받는 외에는 따로 법률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앙실행 자유는 신앙의 외형적 표현형태를 뜻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을 받는 외에도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신앙실행의 자유는 우선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법규(예컨대 민법·형법 등)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내재적 한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신앙실행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규제와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clear and present danger clause)를 생각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4.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제20조 제2항)을 따로 두어 국교를 인정할 수 없는 점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의 당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교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정치의 종교화'와 '종교의 정치화'를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수행해야 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데 그 참된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어머님 전상서

이 글은 왕경애 집사(고등부 교사)가
8월 30일 소천하신 어머니
고 김정현 권사를 그리워하며
쓴 글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불리도 대답이 없으신 어머니.

가시고 나서야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는 소릴 누누히 들었던건 이번엔 큰 일을 치르고 나서야 그간의 부족함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앞으로 투쟁하시며 한쪽은 통통 붓고 한쪽은 막대기처럼 말라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늘 청결함을 유지하시기 위해 씻으려 애쓰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유난히도 자식 사랑이 크셨던 어머니. 환갑이 다 된 아들(왕경래 집사)에게도 늘 먹는 것이 부실하다며 책망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시대 어머니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이 민족의 혼란기를 묵묵히 걸어 오셨던 어머니. 전쟁 때에도 자식들을 위하여 억척스럽게 견뎌온 그 세월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피난 길에 무거운 재봉틀을 머리에 이시고, 등에는 세살바기 아이를 업으시고, 양 손에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행여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남으로 내려오셨다지요. 전쟁 이후에도 자식들을 교육 시키기 위해 이것 저것 안해본 것 없이 험한 세월을 지내셨지요.

주님께서 먼저 믿은 오빠와 올케를 통해 어머니께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을 영접하시고 난 후 집사로, 권사로 교회 봉사에 열심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어머니는 천국을 구경하셨는지요? 올케(김정희 집사)에게 "내가 지금도 살아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아마 천국을 이미 보고 오셨기에 당신께서 천국에 가신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천국을 보이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지나온 80평

생 동안은 되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오빠가 20일 간 작정하고 금식기도를 마친 후였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깨끗하게 준비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기에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돌아가시기 사흘 전부터 계속 찬송을 부르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시던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전날 밤엔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 걱정하였으나 맑게 갠 가운데 아버지 옆에 무사히 합장해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또 성도들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기도 했습니다. 저희 다섯 남매는 어머니가 쌓아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 꽃피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마저 하는 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서 모든 고통을 벗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계시어 어머니!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주님만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모임과 나눔

가중 가능한 물건들(중고품 포함)

▶ 의류

- 신사복, 숙녀복, 코트, 바지, 치마
- 아동복, 운동복
- 사용하지 않은 내의, 양말, 타올, 손수건

▶ 잡화

- 장신구, 구두, 핸드백, 벨트...

▶ 가구

- 소파, 탁자, 식탁, 책장, 장식장, 옷장, 아기 침대, 거울, 의자, 침대...

▶ 전자제품

-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 녹음기, 전화기, 밥솥,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전기스탠드, 다리미, 전기난로, 헤어드라이기, 믹서, 주서, 토스터, 전기장판, 전기담요, 공기정화기, 전기납비, 전기면도기...

▶ 그릇

- 각종 식기, 찻잔, 수저, 티스푼, 일회용 그릇, 조리기구, 주방용품...

▶ 장난감

- 인형, 놀이기구, 블럭쌓기, 보행기, 세발자전거, 모빌, 미니카...

▶ 학용품

- 공책, 연필, 크레파스, 물감, 붓, 팔레트, 필통, 지우개, 칼, 자, 가위, 풀, 볼펜, 책가방,

신발주머니, 망원경...

▶ 악기

- 바이올린, 실로폰, 멜로디언, 리듬악기, 기타, 크로마하프, 팬플루트, 리코더, 피아노, 첼로, 피리...

▶ 서적, 테이프

- 신앙서적, 아동도서, 전집류, 사전류, 동화책, 그림책, 성경책, 찬송가, 설교테이프, 회화테이프, 단행본, 백과사전, CD...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스캐너, 컴퓨터 책상, 프린터, 디스켓...

▶ 운동기구

- 자전거, 아령, 홀라후프, 볼링용품, 배드민턴, 테니스라켓, 골프채, 각종 운동기구...

▶ 침구 및 수예품

- 이불, 방석, 등받이, 베개, 커튼, 담요, 식탁보, 앞치마, 각종 덮개...

▶ 식품

- 병·캔 음료, 인스턴트식품, 저장식품, 차, 한과...

▶ 기타

- 부동산, 회원권, 증권, 자동차, 카메라, 개인 소장품, 상품권, 도자기, 시계, 액자...

✦ 순례자 킬링 ✦

선을 도모하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자기 형제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마침내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변한 안색을 보시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리느니라"고 하셨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 스리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문 앞에 었드려 있는 죄와 경쟁하기보다는 선을 도모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동정

- ◆ 이종윤 목사와 오정수 장로는 23일(화) ~ 26일(금) 제 82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강남노회 총대로 참여.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이순환 목사 가정과 도곡다락방에서 제공.

서울교회 바자 연혁

- ▶ 1993년 11월 12일(금) ~ 13일(토): 청년부 주최 모임과 나눔의 장
- ▶ 1995년 6월 14일(수), 19일(월): 여전도회 주최 파키스탄·방글라데시·국내 농어촌 목회자를 위한 모임
- ▶ 1996년 5월 2일(수) ~ 3일(목):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모임과 나눔의 장
- ▶ 1996년 8월: 수재민을 위한 모임
- ▶ 1996년 10월 23일(수) ~ 24일(목): 교회 설립 제 5주년 기념 바자
- ▶ 1997년 10월 23일(목) ~ 25일(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② 9월 22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교회의 사명(한완상 방송대총장)
- ③ 9월 29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이희창 신한국당 대선 후보)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 준비를 위해
2.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3. 믿지 않는 이웃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